

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2019년 9월 9일 메시지

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 단장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놀은 오푸스데이 회원들인 우리들
에게 우리들 각자가 짊어지고
있는 고통을 성모님께 우리들
이 찾을 수 있는 빛, 평화, 그
리고 기쁨의 장소로 돌릴 수
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청하도
록 격려하였습니다.

2019-9-10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
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!

다가오는 14일에 교회의 전례는 우리
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묵상하도
록 이끅니다. 또한 다음 날은 고통의
성모님의 날입니다.

(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것과 마찬
가지로)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
를 하고 또 그들과 마주치면서, 때로
는 어려움, 고통, 내면의 어두운 상황
에 대한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
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
는 것입니다. 이러한 때에는, 호세마
리아 성인께서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
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곤
합니다.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은총
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.
"하지만 잊지 마십시오. 만약 하느님

께서 그분의 어머니를 찬미하셨다면,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나 신앙의 노력으로 지쳐가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” (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다. 172항)

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,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발치에서 성모님을 바라본다면, 우리는 고난의 경험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조금 씩 조금 씩 성 바오로의 말씀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. “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.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.” (콜로새 1:24)

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찾는 빛,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"Lux in Cruce, requies in Cruce,
gaudium in Cruce."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로마, 2019년 9월 9일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opuseudei-danjang-
monsinyolyi-2019nyeon-9weol-9il/
\(2026-1-31\)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2019nyeon-9weol-9il/)